

“제2 창당 수준 혁신...야권 재편 민주당이 주도”

김한길 대표 신년회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6·4 지방선거 승리'로 정리된다. 지난 총·대선의 뼈아픈 연패에 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제2의 창당'에 준하는 변화와 혁신 드라이브를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야권의 재편 과정에서의 나 타날 '안철수 신당'과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김 대표는 회견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설정과 관련, “지금쯤 정치혁신과 ‘새로운 정치’를 갖고 경쟁하는 때”라며 ‘경쟁’에 방점을 두 뒤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앞장서 주도하겠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야권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상황”을 우려하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김 대표는 “국민 명령에 순종하는 변화”를 강조하며 “최적·최상의 인물론”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걸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할 수 있다”며 “가장 최강의 후보자를 내세워 승리하는데 목표를 두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기존 지방선거 기확단을 확대 개편하는 등 이날 중으

안과 새정치 경쟁...輿에 어부지리 쥐선 안돼

특검 관철 강조...새정추 “새정치 화답” 평가

로 당 조직 전체를 지방선거를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당 차원의 혁신 운동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분과주의와 소모적 비방·막말 추방 등이 김 대표가 국민신뢰 회복과 고품격·고효율 정치를 위해 꼽은 대표적 정산대상이다.

당 혁신 과정에서 그간 계속돼온 리더십 논란을 극복, 당 장악력을 높이고 확고한 중심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임해진다.

김 대표는 ▲민생 우선 ▲소통 ▲실사구시 등 3대 가치를 ‘민주당이 가야 할 길’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대를 위

한 반대’와 이념편향적 이미지에 서 탈피, 중간·중도층 흡수를 통한 외연 확대 경쟁에서도 ‘안철수 신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동시에 민생과 경제민주화 등을 내세워 현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밝혔다. 특검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철도 민영화·의료 영리화 저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이날 김 대표의 회견에 대해 “정치 개혁에 관한 의지를 밝힌 것은 그동안 새정추가 밝혀온 새 정치에 대해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새정추는 또 “야당 대표의 고뇌가 담긴 기자회견으로 평가한다”며 “복지와 민생 문제의 절실함을 얘기하고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전병헌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추, 27일께 창당 일정 발표

설 연휴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 잡기 포석

대국민토론회 개최...‘새정치 플랜’도 공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이르면 설 명절 직전인 27일께 창당 일정을 확정,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아울러 ‘안철수 신당’이 추구할 새 정치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새 정치 플랜’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추의 이같은 계획은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정추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새정추는 오는 27일 신당의 정당정책 마련을 위한 대국민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창당 일정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내부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정추는 신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기존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으려만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창당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추는 창당 일정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새 정치 플랜’을 발표해 한국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새정추는 핵심 가치로 ‘정의로운 사회’ ‘민주적 공공성 회복’ ‘포용 또

는 통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신당이 추구하는 미래 국가와 지방정부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정추는 기성 정치에서 ‘국민’이 실종됐다는 판단 아래 새 정부 모델에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추는 창당 준비를 위해 인물 영입 작업에도 속도를 내 오는 15일 1차로 추진위원 10여명을 발표한다. 이들은 경제전문가나 여성, 노동, 시민사회 출신으로 명망가는 아니지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활동해 왔다고 새정추 측은 설명했다.

새정추는 14일부터 19일까지 1주 일간 ‘안철수 새 정치 주간-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이야기’ 행사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진행한다.

14일 광주 노인복지관과 북구 말바우시장을 시작으로, 16일에는 남구 빅스포 광장, 동구 총장우체국에서, 19일에는 서구 유스퀘어에서 시민과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안과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며 본격적인 세력 확산에 나서는 국민추진위원회 모집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양형일, 광주교육 재도약 ‘10대 프로젝트’ 제시

광주교육감 선거 출마 공식 선언...직선제 폐지 반대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이 13일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 전 총장은 이날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가 최근 몇 년 동안 미숙한 정책실행과 시행착오의 장이 되면서 교육에 대한 시민의 희망이 무너졌다”며 “광주의 자존과 긍지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광주교육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광주교육 재도약을 위한 공약으로 ▲교육정책음부추진제 도입 ▲교육재단 설립 ▲빛고을스마트교육관 건립 ▲실력광주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가동 ▲일선 학교 자율성 보장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경감 등 ‘10대 희망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양 전 총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선거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반대했다.

초·중등교육 이해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악단의 악기를 모두 연주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20여년간의 교육경력을 무시한 용색한 비난”이라고 일축했다.

장휘국 현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혹평했다. 양 전 총장은



“학생·학부모에게는 희망과 비전·인성을, 교사에게는 사기를 진작하는 게 진보다”며 “학력 하락·청렴도 하락·민원서비스 불만족·교육청 평가 꼴찌 등을 놓고 진보라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제까지 광주교육청의 행정은 주어진 권한과 사무, 재정의 틀 안에서 관리기능에 머무르는 소극적 차원을 벗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자율과 창의, 정부·국회·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사업 등을 적극 끌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주선 “한미방위비 분담금 부실 협상”

“총액 산출 기준도 몰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13일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총액이 어떻게 산출된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요구한 액수를 우리가 수락한 것”이라며 “부실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같이 말한 뒤 “작년 8월 말까지 우리나라에서 미군에게 지불한 금액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7100억원이 남아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미군 측에 이 돈을 먼저 집행하라는 2011년도부터 우리가 분담해야 할 금액을 아직 전액을 주지 않고 남아 있는 돈이 3035억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어 “1조 1000억원 이상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방위비를 5.8% 올려주면 협상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을 위한 협상이냐”며 “쓰지도 않을 돈을 미군에 미리 주면 미군은 이 자수입만 해도 얼마인가. 미군은 (1조 원에 최저금리 3%로 한다면) 1년에 300억 이상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 예산안이 이미 통과된 이후에 지각협상을 해서 국회의 국가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협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원순 “안의원과 신뢰관계 유지”

김효석 “박,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만 볼 수 없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 의원의 신뢰 관계 유지를 확인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박 시장은 13일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안철수 의원님과 저는 새로운 정치라는 접점이 있고 신뢰관계가 아직도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자주 뵈었지만, 기회를 만들어 볼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안 의원의 측에서 6월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 입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설왕설래하는 것 같다”며 “여러분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의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문제와 관련해 “박 시장이 민주당을 계속 고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 시장이 지난 선거 때 안 의원의 전폭적 지지 하에 당선됐고 지금도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 시장을 많이 지지하고 있다”며 “어쨌든 박 시장을 단순히 민주당 후보로만 볼 수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임대

2층 : 양 · 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 · 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 062) 651-6581 | 010-3690-7790

옥상 · 외벽 · 내벽 · 주택

전 | 문 | 방 | 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H.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